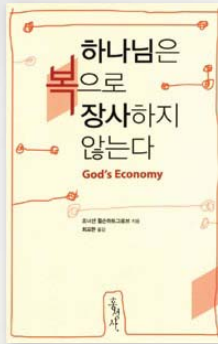


하나님은 복으로 장사하지 않는다

◎ 김태황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조너선 윌슨하트그로브 저
최요한 역 | 흥성사

말랑말랑한 책 한 권이 번역·출판되었다. 저자는 경제학자도 아니면서 감히(?) 하나님의 경제를 들먹였다. 『하나님은 복으로 장사하지 않는다』는 우리말 제목은 세련되지 못하고 훈고적이어서 솔직히 정감 어리지 못하다. 그래도 눈길을 끄는 것은 “하나님의 경제”의 다섯 가지 전술이다. 이 책은 원제 (God's Economy) 그대로 하나님의 경제 원칙을 제시한다. 일상적인 생산과 소비의 최전선에서 세상 경제의 구성원인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복된 삶을 추구한다. 번역한 제목에서 강조된 ‘복’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에는 모두가 동감한다. 비록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마다할 사람은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복’은 선형적으로 다다이신의 속성을 갖고 있

기 때문이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복이든지 자기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빌게 (빌 福) 된다. 복을 주고받는 일에 관심이 몰리는 것은 복을 주는 마음과 받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다. 받는 입장에서서는 보다 수월하게, 보다 많은 복을 받기 위한 요령과 전략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반면 주는 입장에서는 받는 자가 원하는 바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필요와 유익 여부가 더 중요하다. 복에는 받는 자를 위한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어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마치 어린아이가 난로에 가까이 다가가거나, 지나치게 단 사랑봉지에 자주 손을 내밀 때에 엄마의 사랑은 오히려 엄하게 꾸짖는 모습으로 아이의 눈동자에 비치는 경우와 같다. 따라서 복을 주고받음에는 소통이 중요하다. 소통을 통해 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기대감과 활용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하나님의 복은 가시적으로 파악하고 획득하기란 힘들 뿐 아니라 자칫 고통하게 될 위험도 크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복을 경제적 가치로 환원하면서 적지 않은 오해와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경제 원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경제적 가치 사이에 구조적 간극이 있다면 우리의 노력은 일방적인 자기만족이나 아집으로 족쇄가 채워질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타기 위해 거래를 해서는 승산이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정면으로 파고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젊은 시절 정치적 야망이 컸고 급진적 시민운동도 전개하였으나 하나님의 경제에 대한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수도원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저자가 발견한 핵심이자 생각의 출

발점은 바로 세상 경제는 희소성의 경제이고 하나님의 경제는 풍요로움의 경제라는 것이다. 필자는 경제학을 공부한 지 30년이 되었는데, 늘 경제학은 자원의 희소성을 전제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일까를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생각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즉,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공유하기보다는 독점하는 것이 이익이 되고 합법적인 방식이라면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된다. 그런데 저자가 단언하는 하나님의 경제는 본질적으로 풍요로움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풍요로움이 잠재되어 있어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 만나가 그렇고 오병이어의 결과가 대표적인 예라고 적시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경제의 다섯 가지 전술은 기독교인에게 익숙한 내용으로 들리기도 하고 소극적인 대응책으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발상의 구조적인 전환과 실천 의지를 요구하는 강한 메시지를 대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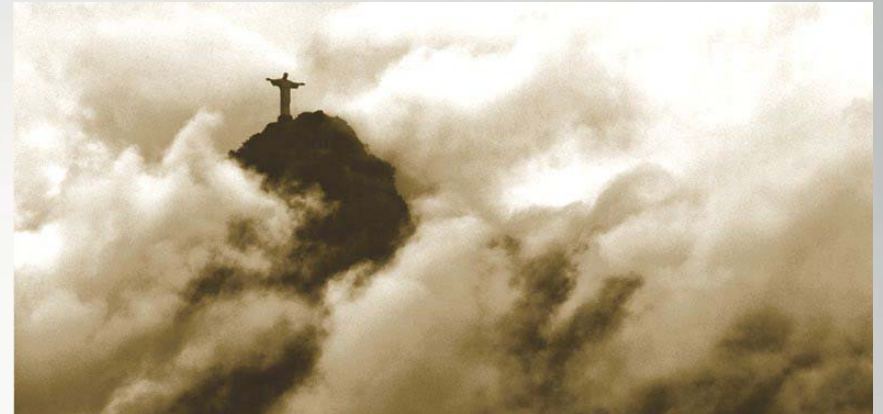
첫번째 전술은 역발상의 섬기는 경제가 되어야 세상 경제의 권세를 뒤엎을 수 있으며 돈의 유희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나약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기적 욕망으로 망가진 세상 경제의 잘못된 현실을 조롱할 수 있는 바른 길이라는 것이다. 섬김은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서 실천될 수 있다. 그런데 치열한 경쟁을 해야 그나마 생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실물 경제 현장에서 섬기는 행위로 자기 밥그릇을 챙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앞선다. 하지만 저자는 “예수님은 실물 경제, 즉 종교차나 부동산 거래가 오가는 세상처럼 저저분하고 복잡했던 물질세계에서 일하셨다”(p.72)며 일갈한다.



두 번째 전술은 영원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투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투자 대상이 ‘영원’이라는 점이 주저하게 만든다. 사실 투자를 하려면 투자한 만큼의 원금은 물론 그 이상, 적정 수준의 보상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며, 보상의 실현 시점도 관건이 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영원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즉,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도 있고 주변에 활용할 것도 많은데 ‘영원’이라는 긴 시간의 컴컴한 터널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나 하는 것이다. 저자는 단언한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를 믿을 것인가, 풍요로운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이다.”(p.118) 영원에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의 감각적인 관계가 아닌 지속가능한 새로운 경제적 관계를 지향한다는 의미가 된다.

세 번째 전술은 서로 의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경제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우정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경제를 지탱할 수 있을까? 너무 순박하거나 감상적인게 아닐까? 하지만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인 계약문화는 상호 신뢰에 근거하고 있다. 법 제도, 관행, 서명, 태도, 가격표, 증인과 증거 등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떤 경제활동도 이뤄질 수 없다. 10여 년 전부터 우리 경제의 화두인 상생 또는 동반성장도 경제적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자는 것이 아닌가. 사실 ‘착한’ 기업, ‘착한’ 가게, ‘착한’ 가격 등의 ‘착한’ 시리즈는 저렴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다는 뜻도 담고 있다. 불의한 사람조차도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지혜를 발휘한다는 성경의 예시는 경제적 친구와 우정의 공동체의 위력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네 번째 전술은 사랑으로 돌보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복음의 핵심이 사랑이기에 하나님의 경제도 사랑의 행위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사랑의 대상이 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



나라는 것이다. 돌보아야 할 대상은 교회 밖 세상에 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경제는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해 ‘행동하는’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선언이다.

다섯 번째 전술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존재 자체에 각인되어 있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막 12:17) 하나님의 복을 받고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주체는 사람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바른 인식과 그에 걸맞게 행동하려는 의사결정은 하나님의 경제를 실천하는 동력이 된다.

이 얇은 책의 매력은 곳곳한 경제학 지식의 엮이기를 말랑말랑한 먹거리로 톡톡 치고는 ‘나 잡아봐라’ 하며 앞서가는 이미지로 즐겁게 따라가 볼만하다. 복잡한 경제학 지식도 결국은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단도직입적으로 속내를 드러내 보인다면, 이 책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대로 살아보자고, 돈과 권력에 망가진 세상 경제를 제자리로 돌려

보자고 경제적 친구들을 불러들인다. <하나님의 경제>라는 원 제목을 생각할 때 세상 경제학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 신비하고 강력한 경제 원리가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는 없더라도 세상 경제 원리를 맞아칠 배짱과 목소리는 챙길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경제 활동이 신앙에 근거해야 하지만 경제적 동인을 세분화하여 고찰함으로써 신앙과 경제 활동이 통합되는 전(全)인격적 행위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일은 이 책이 보완해야 할 과제이다.

저자가 명쾌하게 기술한 것처럼, “우리는 권력에 집착함으로써 예수님의 길을 맥도날드의 글로벌 전술과 혼동해 왔다. 우리는 기업 형태의 조직을 도시와 시골 곳곳으로 확장하고 경쟁자를 몰아내고 시장을 지배하면 수십 억 영혼을 섬길 수 있으리라 여긴다.”(p.67) 하지만 우리는 영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언해야 한다. 하나님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단편적인 일상 행위 하나하나를 변화시켜야 한다.



김태황 현재 명지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 교수이며,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맹회 실행위원이다. 현재, 건설교통부 내부규제개혁 심의위원이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S+공사(구, 서울도시개발공사) 경영전략 전문위원이다.